성인이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다시금 시작선에 선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태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 많은 경쟁을 겪어야 했고 그리고 마침내 대학에 들어와서는 다시 취업문에 들어서기 위한 경쟁을 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물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의 생활 역시 사회생활을 배우는 과정이었지만 대학은 학습의 심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학에서의 계획은 무척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선 대학에 들어오면 여태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첫째로는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것이고 두번째는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제 스스로의 견문을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졸업 직전에 친구네 가게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키즈 카페였는데 그 공간에 새삼 많은 외국아이들과 외국인들을 마주하며 공부를 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영어는 필수 언어지만 사실 영어를 딱딱하게 외우는 것이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영어를 다시 공부하게 된다면 회화 위주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이들과 대화하고 친해지면서 자연스레 영어를 배우는 것은 어떤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전 견문을 넓히기 위해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했었는데 특히 꼽자면 해외를 많이 다니고 싶습니다. 직장인이 되면 시간도 별로 없고 마음먹고 떠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당장 저희 언니만 보아도 일을 하느라 쉬는 시간조차 잠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은 다른 직장인들보다 방학이라는 좋은 시간이 있고 이 시간동안 많은 것을 보고 겪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생활 중에서 중요한걸 뽑자면 일명 스펙 쌓기와 직장에 어떻게 취업할 것인지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일들을 고를 수 있는데 그 중 스펙 쌓기에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사실 아직 1학년이고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완벽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IT에 관련된 강의들을 들으러 다니거나 아니면 인턴생활을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의 스펙을 쌓을 수 있고 깃허브라는 것을 통해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정리해 둘 생각입니다. 또한 지금 당장 IT에 대한 지식이 없는 관계로 Html이라던지 아니면 자바, 앱 등 여러 방면으로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펙을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직장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어떤 직장을 갈 것인지 일텐데 저는 제가 배운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특히 모든 이들의 꿈인 구글사는 저에게도 하나의 목표입니다. 제가 정확히 앱 개발쪽으로 가겠다! 혹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겠다! 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어느 회사에 어떤 곳으로 가고 싶다는 정확한 목표는 없지만 제 꿈을 이룰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때도 그리고 대학교때도 소수의 친구들과 충분히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되는 장소입니다. 고등학교때까지는 같은 반 친구, 반 선생님 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면 대학에서 부터는 그런 개념이 아닐 뿐더러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한 강의실에 있고 매 강의마다 사람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교성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까지 대학생활을 한 것은 겨우 두 달 내지 세 달 정도이지만 그 사이에서 저는 정말 사회에 가기 위해 다시금 인간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한 내용은 인간관계, 스펙 쌓기, 희망하는 직장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일들과 경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겨우 한쪽을 채울 정도의 분량밖에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하고싶었던 것들이 떨어져가는 걸 느끼면 제가 얼마나 고등학교의 삶에만 매달렸는지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막상 대학생이 되고 나니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아졌는데 어떤 것을 해야 할 지 모르는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 취미에 대해서 늘어보고자 합니다.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캘리그라피 라고 하는 것을 즐겨 합니다. 붓글씨와 비슷한데 마음에 드는 시 구절이나 혹은 명언들을 가져다가 붓펜, 만년필 등으로 예쁘게 쓰는 것인데 이걸 하다 보면 저 스스로도 차분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귀걸이나 드림캐쳐 등 스스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는데 특히 시집을 모으거나 추리책을 읽는 것도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풍경사진을 찍는 것도 좋아했고 지금도 가끔은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또 홈 베이킹 하는 것을 즐겨하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오븐이 없어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저것 늘어 놓다 보니 취미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자수나 손 뜨개질처럼 손재주를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좋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잘하는 편은 아닌데 스스로 무언가 만들어 성과를 낸다는 것이 제게 계속하게 되는 계기를 준 것 같습니다. 목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하듯이 무언가 계속 도전하다 보면 여러 방면으로 하고 싶은게 잔뜩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미까지 모두 이야기 하고 나니 제가 전공 외에 무슨 공부를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우선 언어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언어를 원어민처럼 하고 싶다는 것은 아니지만 간단한 일상 대화가 될 정도는 되고 싶습니다. 특히 일본어나, 혹은 스페인어 독일어 등 유럽 쪽 언어들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또 전문적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베이킹 자격증을 따 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제 문화생활에 관해서 하고싶은 것들이 몇가지 있는데 우선 마블 영화 내용 정리하기 입니다. 저는 마블 영화를 좋아합니다. 세계관 자체도 웅장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그곳에 나오는 영화들 안에 주인공들의 인간관계나 갈등, 숨겨진 요소를 파악하는게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가끔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마블을 좋아하고 다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복잡하게 여기지 않겠지만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로 나 홀로 영화 감상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영화관은 커플, 가족, 친구끼리 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저는 저 홀로 아침시간을 이용해 영화보는 걸 해보고 싶습니다. 집에서 TV로 감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과 혼자 나가서 본다는 것은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뮤지컬을 관람하러 가보고 싶습니다. 사실 친구가 굉장히 뮤지컬을 즐겨보는데 저도 한 번 같이 보러 가려 했다가 관람 값이나 시간적 여유가 되지 못해서 가지 못한 경우도 있고 표를 구하기가 힘들어 가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뮤지컬 이란게 사실 마니아 층이라고 해서 관심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잘 관람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니아 까지는 아니더라도 흥미로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쉽게 홍보되지 않다 보니 대중적인 이미지보다 뭔가 전문적인 이미지가 강해진 것 같습니다. 뮤지컬 관람은 신선한 경험을 해 봄으로써 제게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생활은 앞으로 3년 조금 더 넘는 시간동안 계속될 것이고 지금 계획이 바뀔 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수록 하지 못할 일들이 많을 때도 있을 것이 분명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초심과 같은 마음을 늘 지켜 나가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긴 대학생활동안 동기 친구들과 재밌게 지내고 싶습니다.